

# 6월의 휴식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사람들의 손 끝이 분주해지고 있다  
 더위를 피해 떠날 수 있는 바다와 계곡은 이미 정보의 고수(?)들이 차지했고  
 틈새 여행지는 검색을 생활화하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숨겨진 여행 명소는 늘 존재하는 법이다  
 뜨거운 여름 일상으로부터 완벽한 탈출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경기도의 숨겨진 여행지를 공개한다

## 경기

물놀이·갯바위 낚시를 함께 '입파도'  
 섬 전체에 다양한 야생화 가득 '풍도'  
 자연과 어우러진 설치예술작품들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파빌리온'  
 소설 임격정·박문수 배경 '안성 칠장사'  
 화성엔 공룡알화석지·비봉습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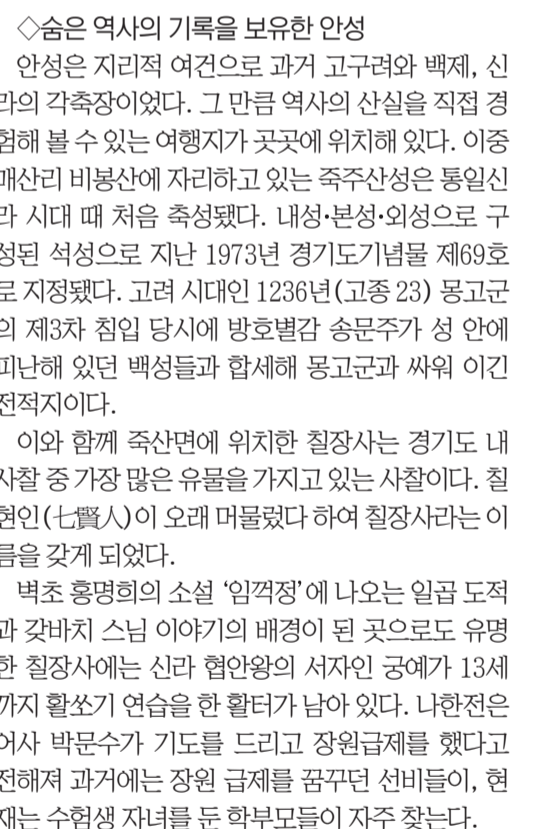
◇평온한 휴식과 더불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숨은 보물섬 '입파도'와 '풍도'  
 서해자연이 숨쉬는 섬 '입파도'는 섬 대부분이 해발 50m 이하의 낮은 구릉으로 야기자기한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서쪽으로는 완만하고 남·북쪽으로는 해안절벽이 있다. 붉은색 기암괴석이 해송과 갈매기와 어울리며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켜 '입파홍암(立波紅岩)'이라고 부른다. '입파도'는 화성시의 화성 8경 중 하나로, 전곡항에서 '입파도'행 정기선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해안가는 바닷물이 맑고 썰물 때에도 물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물놀이하기 좋고, 선착장 주위와 갯바위에서는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다만 모래와 조개껍질이 섞여 주위가 필요하다. 수도권 당일 섬 관광 코스로 적합하고 1박 이상의 여행에는 대부분 민박을 이용하는데 성수기에는 반드시 예약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섬 '풍도'는 면적 1.84km, 해안선 길이 5.5km에 불과하지만 천혜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봄이면 노루귀와 복수초를 시작으로 초롱꽃, 풍도대극, 붉은대극, 바람꽃 등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야생화가 섬 전체를 뒤덮고 있다.  
 또한 놀래미와 우럭, 광어, 농어 등 풍부한 어종을 보유해 바다낚시를 즐기기도 안성 맞춤이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다 만나게 되는 '진장수리 해변'은 '진달래섬'이라 불리는 풍돌이 깔려 있어 해수욕에 그만이다.  
 섬의 서쪽 해안에 자리한 '북배'는 붉은 바위를 뜻하는 '북바위'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붉은 바위와 파란 바다 빛이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해질녘 펼쳐지는 아국적인 풍경은 여느 섬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삼성산 삼림욕장 산행코스를 따라가면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3호인 안양사 귀부(安養寺歸夫) 등 다양한 불교유적을 볼 수 있다. 여름이면 공원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다.  
 인근에는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리는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Alvaro Siza Vieira)'가 아시아 최초로 설계한 안양 파빌리온이 위치해 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의 작품 중 하나인 '안양 파빌리온'은 공공예술과 관련된 각종 도서 및 자료가 다양하게 보관되어 있고, APAP 공연 등이 수시로 진행돼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또 안양예술공원을 통해 오를 수 있는 '망해암'은 관악산 지류 정상이란 지리적 불리함에도 절벽을 이용한 다양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어 등산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서향에 위치한 '망해암'은 해가 지는 오후가 되면 눈부신 태양이 서쪽 산 너머로 사라지는 일몰의 장관을 지켜볼 수 있다.  
 공원 바로 옆에는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안양예술공원에 조성된 음식문화거리는 1km구간에 계곡을 따라 100여개의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자연과 예술의 조화로움 속에 지역의 문화가 짙게 배어나와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 메기매운탕에서부터 추어탕, 곰탕, 보리밥, 바비큐, 스테이크 등 다양한 먹거리와 팔빙수, 요거트, 작은박물관 옆 카페 등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먹거리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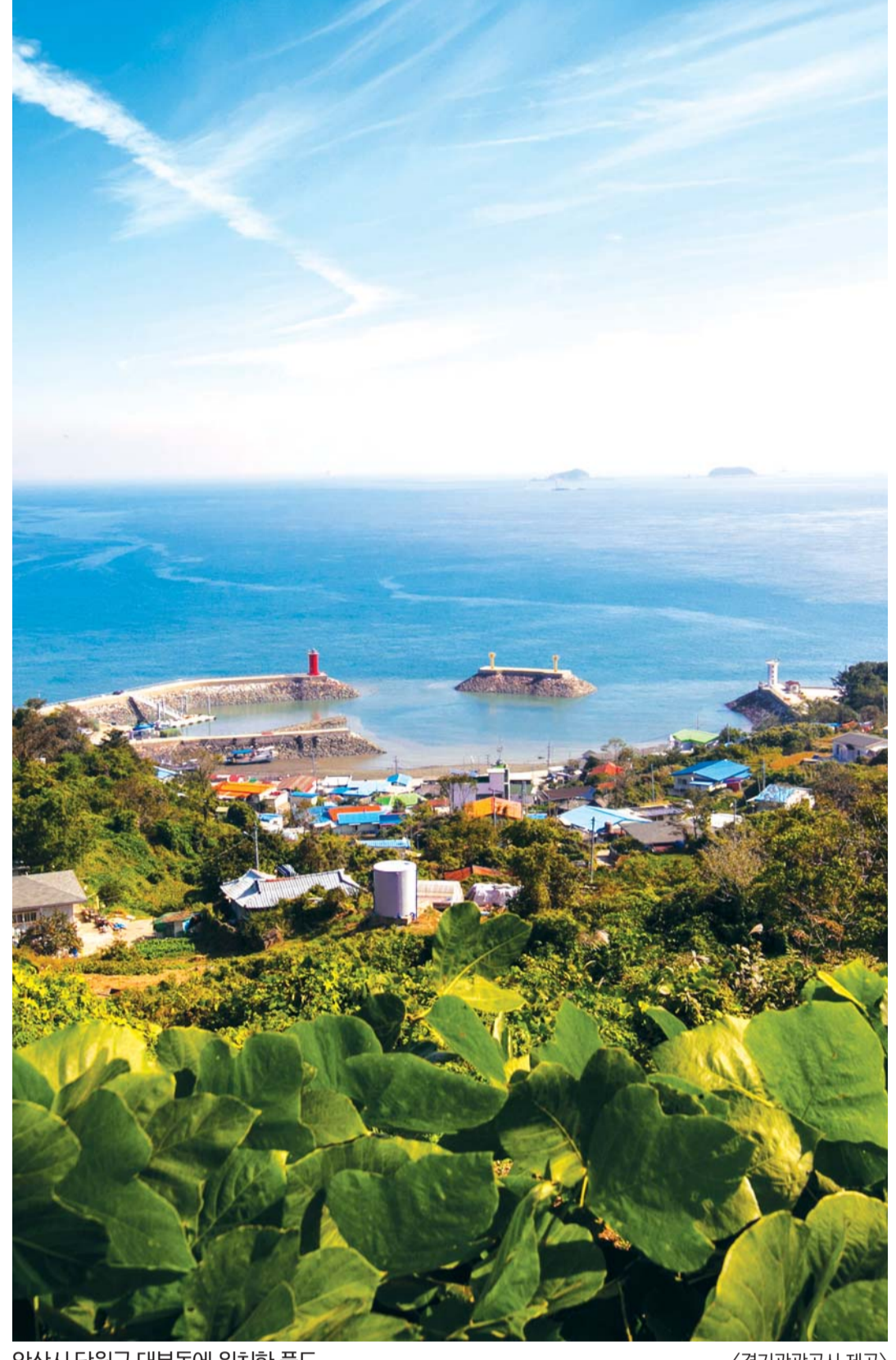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리는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Alvaro Siza Vieira)'가 아시아 최초로 설계한 안양 파빌리온. <APAP 제공>

◇숨은 역사의 기록을 보유한 안성  
 안성은 지리적 여건으로 과거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다. 그 만큼 역사의 산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행지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이중 매산리 비봉산에 자리하고 있는 죽주산성은 통일신라 시대 때 처음 축성됐다. 내성·본성·외성으로 구성된 석성으로 지난 1973년 경기도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됐다. 고려 시대인 1236년(고종 23) 몽고군의 제3차 침입 당시에 방호별감 송문주가 성 안에 피난해 있던 백성들과 함께해 몽고군과 싸워 이긴 전적지이다.  
 이와 함께 죽산면에 위치한 칠장사는 경기도 내 사찰 중 가장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다. 칠현인(七賢人)이 오래 머물렀다 하여 칠장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격정'에 나오는 일곱 도적과 갯바위 스님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한 칠장사에는 신라 협안왕의 서자인 공예가 13세까지 활쏘기 연습을 한 활터가 남아 있다. 나한전은 어사 박문수가 기도를 드리고 장원급제를 했다고 전해져 과거에는 장원 급제를 꿈꾸던 선비들이, 현재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주 찾는다.



아생화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비봉습지공원. <경기관광공사 제공>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위치한 풍도. <경기관광공사 제공>



아생화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비봉습지공원. <경기관광공사 제공>

까지의 거리는 약 1.6km로, 붉은 빛을 품은 염생식물이 갈색 흙과 어울려 신비롭고 고요한 풍경을 선사한다.  
 아울러 바닷물이 나가며 들어난 바닷은 바다 생물의 변화도 보여준다. 소금기가 빠져나가며 염생식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육지 식물이 자라고 있다. 변화의 흐름은 무척이나 느려 지금은 바다와 육지 생물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비봉면에 위치한 '비봉습지공원'은 야생화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시화호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해 화성시와 안산시의 3개 하천 합류부에 조성한 인공습지인 '비봉습지공원'은 개장 이래(2015년 6월)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만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나머지 구역은 자연정화 작업 중이다. 이 곳의 산책길은 광활하게 펼쳐진 습지를 배경으로 A,B,C 등 총 3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리는 각 1-2km다. 산책로에는 낭아초와 범부채꽃 등 계절에 맞는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 있다.  
 이 밖에 비봉습지공원은 해설사와 동행하며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해설시간은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습지전망대에서 시작한다. 10명 이상일 때는 상시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필수다. /경인일보=김중찬기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